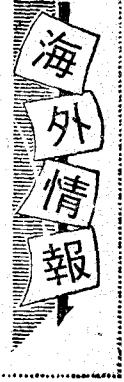


最近의 海外養鷄技術動向



■ 長時間點燈은 產卵을 促進한다

산란기에 對한 光線이 產卵을 促進한다는 點에서 말하자면 하루의 光線照明時間은 最大限 17時間이면 充分할 것이다. 지나치게 긴 光線時間을 준다는 것은 닭은 體力을 弱하게 만들게 되며 또한 產卵을 오히려 低下시키게 된다고 最近의 外誌가 다음과 같이 注意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도 大多數의 養鷄家들은 이 일에 關하여 理解해 왔고 從前보다 點燈時間을 짧게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點燈하는 方法으로서 여지껏 흔히 쓴 方法은 產卵을 開始하여 產卵率이 내려가기 始作할 때까지의 期間은 14時間點燈을 하고 其以後부터는 STEP UP(電壓을 높인다)하여, 17時間까지 點燈한다. 이것은 低下하려는 產卵을 促進하여 產卵率을 높여보려는 手段이지만 그러나 實際로, 이 方法은 옳지 않은 것이다. 產卵이 내려가기 始作했다는 뜻은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要因이라든가 이미 老化現象이 發生하여 그 影響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點燈의 STEP UP을 더 빨리하여야 한다. 點燈時間을 延長하기 始作했어도 그 效果가 나타날 때까지는 約 三週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이 點에 留意하여 點燈의 STEP-UP을 始作하여야 한다.

■ 休產卵期間의 給餌法試驗

伊太利에서의 研究에 依하면 產卵鷄飼料의 鹽分含量을(0.038%) 少量으로 줄이므로써 產卵을 急激하게 멈추게 한 結果를 얻었다. 그리고 鹽分을 다시 適當量으로 還元시켜보니 產卵이 急速히 回復되어 높은 產卵率이 持續되었다. 이와 같은 傾向은 產卵初年度를 지나고 休產하고 있는 鷄群에 對해서도 얻어졌을 뿐더러 卵殼質과 卵白도 改善되었다.

低鹽分飼料處理에 依해서 얻어지는 結果는 強制換羽한 닭에 對해서도 같은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伊太利의 試驗報告에 依하면 低鹽分飼料를 給餌한 닭은 不過 2~3개의 깃털이 빠졌을 뿐 그 以上の 換羽現象을 일으킬 程度는 아니었다. 萬若 休產現象만으로서 全面換羽를 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라면 새로운 털이 생길 때까지의 飼料에너지가 그만큼 不必要하기 때문에 強制換羽하는 境遇는 有利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伊太利의 試驗에서는 76週令의 鷄群을 對象으로 低鹽分飼料를 結餌했으나 產卵은 4週間 以內에 끝났다. 그리고 80週令 때 平常의 鹽分含有(0.23%) 水準의 飼料로 還元시켰다. 6週後에는 피크의 60% 產卵率이었다. 이 產卵피크는 強制換羽鷄의 產卵率로서는 좋은 成績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試驗에서는 갈슘을 極도로 줄이므로써 產卵을 停止시킬 수 있다는 例가 있다. 이 方法과 低鹽分法에 關해서는 直接 比較試驗을 해

볼 必要가 있으며 어느 쪽이 理想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는 今後 추구해 볼 必要가 있다.

■ 低칼로리-育成과 產卵期脂肪

일반 체란계를 低칼로리-飼料로 育成하는 것으로서 育成期에 平常의 高에너지飼料를 給與하여도 體脂肪의 축적은 抑制되더라 하는 試驗成績을 코넬大學의 研究家가 發表하고 있다. 이 試驗에서는 入雛 부터 22週令까지의 育成期에 있어서 低에너지飼料를 給與한 것이며 產卵開始後부터는 平常의 產卵飼料로 交替給與했다. 그리고 平常의 飼料로 키운 育成鷄와 比較해 본 結果 產卵期에 들어가서부터의 體脂肪의 總量은 試驗鷄에 있어서는 정상사료의 育成鷄보다도 約 23% 적었다. 腹部脂肪은 產卵鷄脂肪의 大部分을 占有하지만 그 量은 50% 적었다. 產卵期를 通하여 試驗鷄는 脂肪過多는 않되었다. 그리고 脂肪의 量도 對照鷄보다는 적은 狀態에서 試驗을 끝냈다. 以上の 結果에서 育成期에 飼料中の 칼로리가 낮은 것을 씀으로써 產卵期에 있어서도 餘分の 體脂肪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닭은 健康에도 安全한 示唆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研究者는 말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가 케이지飼育될 境遇 過肥가 抑制될 뿐더러 脂肪過多로 因한 肝臟障害의 發生이 적어지므로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될 것이라고 附言하고 있다.



농업 전망 —축산물 수요 둔화경향—

■ 일본 ■

일본농림성은 지난 12월 19일 “75년 농업전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75년에 있어서 농산물의 수요는 당초의 전망으로는 서서히 회복해 실질적인 지출은 2~3%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의 식료품소비는 낮은 신장에 머물렀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농산물 수요를 규정하는 음식비의 지출도 회복하는 경향으로 추산한다면 연간 2%정도의 신장이 전망되어진다.

축산물의 수요전망은 우유, 돈육에서는 공급량의 제약도 있어서 가격수준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체소비의 신장은 둔화되지 않고 정체될 전망이며 또한 출하량의 증가등에서 가격이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상대적인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우유의 소비량은 75년에 들어서 증가를하여 상반기에 있어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7.3%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우유의 소비는 우유소비자가격의 상승 등으로 76년도 소비량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돈육의 소비량에 있어서 가정용소비량은 75년도 상반기를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1.9% 감소했으나 캔, 소세지 등 가공품의 소비가 전년동기보다 8%정도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가정용은 계속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가공품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가공품의 소비가 이처럼 증가하는것은 품질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4) 계란의 가정소비량은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보다 8.8%나 증가했으나 하반기 (7~9)월에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감소했고 가공면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경향이 계속될 전망으로서 약세를 보일 것 같다.

5) 계육의 소비량은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8.8%나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전망된다.

그런데 계육이 이와같이 증가하는 원인은 돈육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육의 대체육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 공급전망에서는

1) 생유(生乳)생산은 75년 8월에 2세이상의 乳用牛마리 수가 전년동안에 비해서 1.3% 증가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생유(生乳)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성우(成牛)의 도살수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73년말이래 사료의 급등 우지육도매가격의 하락에 의해 급히 감소한 비육우가 출하시기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지육도매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75년에 들어서 유우송이 비육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유의 수입할당에서는 11월까지 5萬톤에 달해서 이것의 대부분은 거의 년내에 수입되어져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추가수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계란의 생산량은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1.9%를 하회했다가 채산성이 호전되어 하반기초순(7~9월)에는 병아리사육 마리수가 전년동기에 비하여 7.7% 상회했다는데에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를 겨우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로이라의 출하마리수는 상반기에 전년동기에 비해 3.2% 하회했다가 채산성이 호전되어 75년 5월 이후 병아리 사육수수가가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년동기수준을 겨우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